

VAM, 뒤늦게나마 가격인상 돌입!

삼성BP화학, 정기보수 이전 가격인상 단행 ... 원료가격 상승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VAM(Vinyl Acetate Monomer)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BP화학이 뒤늦게 가격인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VAM 가격은 원료인 초산가격과 연동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최근 들어서는 Methanol 및 에틸렌 가격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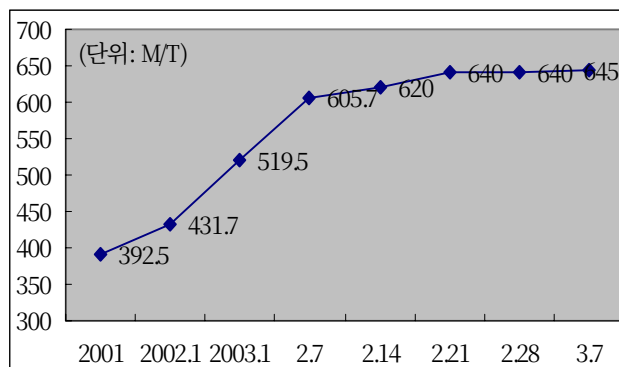
VAM은 BP가 주로 유럽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미국시장은 Celanese와 Millenium이 공급하는데 모두 원료 가격 상승분을 전가시키지 못했고, 국내 제조기업인 삼성BP화학도 국내 수요기업들의 눈치만 보다가 가격인상 시기를 놓쳤었다.

삼성BP화학은 원료 코스트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뒤늦게라도 원료가격 상승분을 전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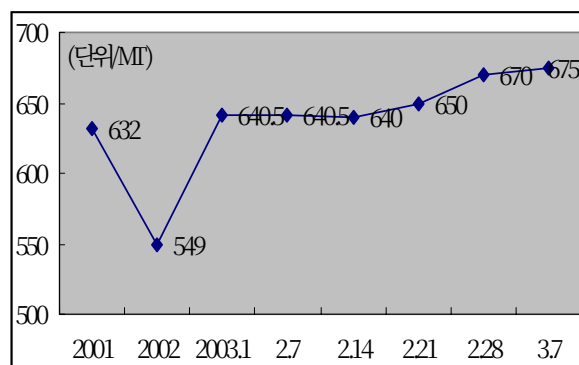
2003년 1월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삼성BP화학은 2002년 12월 톤당 600달러 초반을 유지하던 가격을 3월 750달러까지 올렸고, 4월에는 최고 100달러 정도 더 인상해 800달러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밝혀져 다운스트림 PVA(Polyvinyl Alcohol) 제조기업인 동양제철화학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VAM 가격은 CFR FE Asia 톤당 549달러로 원료가격이 한참 오르기 시작한 2002년 3/4분기에 가격인상에 실패해 뒤늦게 가격인상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2003년 1월 644달러, 2월28일 660달러, 3월7일 675달러까지 상승했다.

에틸렌 가격추이



VAM 가격추이



VAM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는 Methanol 및 에틸렌 가격의 강세가 지적되고 있다.

Methanol 가격은 3월 중순 현재 FOB Korea 3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 에틸렌 가격은 나프타 가격의 상승으로 꾸준히 올라 2002년 12월 FOB Korea 톤당 432달러에서 2003년 3월7일 645달러까지 상승했다.

특히, 에틸렌 크래커들이 3월 이후 줄줄이 정기보수에 들어가면 VAM 가격은 원료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아 크게 상승할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 국내 VAM 수요는 12만1000톤으로 삼성BP화학이 9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만1000톤은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월부터 삼성BP화학이 2-3주 정도 정기보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VAM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VAM의 주 용도는 PVA, EVA, EVA Emulsion 등이다. <김지영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25>